

지역 소식통

허순구 음악감독 초청 정읍 단풍아카데미 열려

정읍시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 공연장에서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제106회 정읍 단풍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챔버뮤직소사이어티 대표 허순구 음악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허순구 음악감독은 강원스트림오케스트라와 춘천실버예술단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8년에는 춘천시 음악상, 2020년에는 강원예총 공로상 등을 수상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허순구 음악감독은 이날 강연에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클래식 음악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클래식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문 실내악 연주단의 클래식 연주를 통해 익숙한 곡을 직접 감상해보는 특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시장격리곡

매입 새청무 추가 선정

고창군이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품종에 새청무를 추가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은 공공비축미 9660톤과 시장격리곡 7468.8톤을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대상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인 신동진 수광이었다.

그러나 올해 벼 생산량 및 매입대상 품종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시장격리곡 매입량 3615톤이 부족함에 따라 14개 읍면 추천 및 농가 출하가능량을 조사한 뒤 시장격리곡 매입 품종 선정 심의회를 거쳐 '새청무'를 추가 선정하여 매입을 진행키로 했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업정책과장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 해주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장격리곡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 교통 불편 최소화...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고창군이 동절기 제설 대책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 3월15일 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관내 34개 노선 327km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제설장비 등을 이용하고 읍면지역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고살재, 암치재, 방고개 등 취약구간 중점관리, 고갯길 적사장 모래주머니, 주의 표지판 설치, 염수분사장치 정비와 경찰서, 군부대,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제설제, 모래주머니 등을 곳곳에 비치해 폭설에 대비하고, 차량 운행시 집중 급커브 등으로 햇빛이 들지 않

은 구간은 집중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제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분트럭 15대와 제설봉사자 트랙터 200여대를 읍면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군 나철주 건설도시과장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 올 안길,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사용자 편의 제공 ·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부안군이 22일부터 부안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자는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휴대편안 있으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원하게 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QR코드 결제제 비듯해 삼성페이를 연계한 결제 서비스다.

다만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는 삼성 전자 핸드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한해 지원되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 카드 대신 상품권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해야 한다. 삼성페이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품권 체크카드 신규발급은 '고창사랑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페이 결제서비스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이라면 모두 사용자가 능히 QR결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군은 22일부터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29일부터 QR결제 가맹점을 모집해 12월중 QR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올해 안에 전체 가맹점의 10%인 240개소에 대해 QR결제

서비스 가맹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R결제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카드 상품권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1~3%)를 줄일 수 있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화폐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과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확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 내달 30일까지 신청 · 접수

정읍시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와 녹비 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농약 ·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증진과 농약 ·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을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에 유기농업 자재 목록에 공시된 자재를 지원하고, 녹비 작물 지원은 지역 내 전 작물 재배 농가에 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 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다.

유기농업 자재는 ha당 총구입비 기

준 유기농 인증 농가는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는 150만원, 일반농가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30일까지 토양검정 결과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고, 같은 시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증진과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동절기 상수도 동파방지 대책반 운영

부안군은 21일 동절기 대비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대행업체 회의를 실시하였다.

동절기 중에는 상수도 관로 결빙과 파손으로 인한 수도물 손실량이 증가하며, 주택 내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기간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관로서고로 인한 단수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행업체 6개 업체를 소집하여 동절기 대비 긴급지원반 확대 편성, 장비 확보 및 신속한 민원해소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상수도 관로 동파 방지를 위해 스팀 해빙기 및 보온재 등 긴급 복구 장비 확보 하도록 하고 기존 상수도 긴급지원반 1주 1개 업체에서 2개 업

체로 근무조 편성 변경 등 24시간 긴급복구 대비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보온필름과 교체용 계량기 등을 확보하여 계량기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동절기를 대비하여 계량기합 보온재 설치 등 한파 기간 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상수도 급수 민원 사전대비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가정과 사업체에서는 옥내급수관 결빙 및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에 헝겊 등으로 외부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장시간 외출 시 수도물을 조금 흐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토론훈련 실시

산·물·바다가 잘 어우러진 부안군은 18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훈련을 가졌다.

이 날 회의는 군청 각 부서 및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등 13개 협업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지진으로 인한 방산능 누출 및 화재 대응'에 대해 기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도록 훈련 시나리오와 기관별 임무 역할 등에 관해 점검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위원과 공개모집으로 선정돼 처음 참여하는 국민체합단 5명이 함께한 가운데 재난위기사 관련 기관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한빛원전의 비상계획 구역에 부안군이 5개면이 포함되어



산·물·바다가 잘 어우러진 부안군은 18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훈련을 가졌다

'지진으로 인한 방산능 누출 및 화재'를 가정해 22일 기관장 주관으로 부안실내체육관에서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사회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21일 "평소 주민의 재

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대응 훈련을 통해 주민과 함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